

나카무라 젠사쿠 - 오타루의 인상파 화작

오타루의 풍경은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나카무라 젠사쿠(1901년~1983년)의 작품이라 하면 오타루를 떠올립니다. 나카무라는 선명한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구성이 특징인 화풍으로, 평생 동안 고향의 풍경을 계속 그렸습니다. 산과 바다가 빚어내는 오타루만의 독특한 풍경은 그의 작품에 공통되는 주제입니다.

니시야 가문은 오타루에서 처음으로 창고업을 시작한 선주이며, 나카무라가 10대 초반이었을 무렵부터 그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나카무라는 학업을 마친 후 니시야 가문에서 일하며 밤에는 오타루 서양화 연구소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을 배웠습니다.

1924년, 나카무라가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기 위해 도쿄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니시야 가문은 나카무라가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오타루의 작은 언덕에 있는 별장을 반년 동안 빌려주었습니다. 20대 시절 나카무라는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세잔(*Paul Cézanne*, 1839년~1906년)의 작품을 만났으며,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그와 유사한 대담한 필치와 선명한 색채로 오타루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1925년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전람회 중 하나인 도쿄 니카텐에서 그의 작품이 입선했습니다.

그는 매년 고향으로 돌아와 급속히 근대화되고 자연환경이 변화하는 오타루의 도시를 그렸습니다. 나카무라의 전쟁 전 작품 중 상당수는 1942년 도쿄 대공습으로 소실되었지만, 그림에도 상당수가 시립 오타루 미술관 나카무라 젠사쿠 기념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